



“몰입·열정·광기...
극한 상황속 인간의 욕망
옛보고 싶었다”

첫 소설집 '기차가 달린다' 펴낸 차노희씨

소설가 차노희(38)씨의 글을 읽으려면 약간의 심호흡이 필요하다. 극한 상황에 내몰린 주인공들의 파격한 삶, 현재와 환상을 넘나드는 낯선 상황들이 펼쳐지는 소설들은 가볍게 읽히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무겁지 않은 않다. 그녀의 소설이 갖고 있는 자성은 무엇보다 '이야기의 힘'이다. 마지막까지 결말에 대한 궁금증을 지속적으로 유발 시키며 끝까지 읽게 만든다. 작품의 결말, 엄청난 반전은 아니더라도 '아' 하는 작은 탄성이 나오며 움찔하게 만드는 무엇이 있다. 단문으로 속속 써내려간 문장들은 스토리에 힘을 더한다.

이런 실험은 인간의 본성을 옛보고자 하는 일종의 호기심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파국 속에서도 '베이비 파라다이스'에서 '여자'가 '나'의 어깨를 감싸는 행위처럼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의 끝에서 어떤 작은 '희망'을 보여주고 해요. 작품 속 인물들이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설 때까지 작품을 계속 써 나가야죠.”



차씨가 첫번째 소설집 '기차가 달린다' (문학들)를 펴냈다. 개인 습작 기간을 거쳐, 지난 2002년 스물 일곱 살의 나이에 광주대 문예창작학과에 입학, 본격적인 문학 수업을 받은 지 꼭 10년만에 내놓은 소설집이다. 이번 소설집에는 2009년 광주일보 신춘문에 당선작인 '얼굴을 보다' 등 모두 7편의 단편이 실려 있다.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조지 오웰 '1984'같은 작품 구상

'문학적 자극' 대학생활 11년째... 삶 배우는 강의도 꾸준히

“소설을 쓰던 초창기에 염을 하는 법을 취재했는데, 글을 쓰는 사람들이 소재를 찾기 위해 다 그런 현장을 찾지는 않죠. 그런 아무래도 죽음과 공포 등에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쩌면 소설 속에 등장하는 화자들의 모습은 극한 상황에 놓였을 때의 또 다른 나의 자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주인공들은 외부적 환경에 트라우마를 갖고 있고, 나름대로 그 상처를 치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현실의 우리들처럼 말이죠. 당노병처럼 병을 다스려간다고 할까요.”

“11년째 광주대 문창과에 다니고 있어요. 학부를 졸업했을 때 일종의 두려움이 생겼죠. 생활에 매몰되면 소설을 놓칠 것 같았기 때문이죠. 늘 문학으로 자극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학교와 연을 이어가고 싶어 등단할 때까지 졸업할 유예하기도 했어요. 생오지에서 소설 강의를 하는데 가르치는 것이 곧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기회가 닿으면 문학의 다양성을 위해 여러 삶을 배울 수 있는 강의를 꾸준히 하고 싶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듯한 주인공들의 등장과, 그들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가치없는 스토리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정신적으로 피폐한 아버지에 성추행을 당하거나(기차는 달린다), 죽은 아이들을 박제하거나(베이비 파라다이스), 환상 속에서 시신과 사람을 나누거나(블랙 미러), 자신을 버린 어머니가 사는 옆집에 세 들어 살며 그녀를 관음(사마귀의 눈물)하는 이들이다.

차씨는 현재 은사인 소설가 문순태씨가 만든 '생오지'에서 기초반 강의를 맡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 대표 예술가들의 진솔한 모습

육명심씨 광주 첫 사진전, 내달 3일까지 롯데갤러리

초봄, 아니면 어느 겨울날, 미당 서정주 선생이 바지 저고리 차림으로 양손을 소매에 끼고 멀리 눈이 내려앉은 산등성이가 잘 내다보이는 언덕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 서정주 시인은 훗날 사진이 마음에 든다며 직접 붓글씨로 시 한 편을 써 줄테니 사진과 맞바꾸자고 했다.

중 카메라에 담은 오화백의 모습은 30년 전을 떠올리게 한다. 한국 대표 예술가들의 진솔함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 사진계의 원로, 육명심씨는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롯데갤러리에서 '예술가의 초상'전을 연다. 광주에서는 처음 열리는 전시로, '예술가의 초상'전은 그가 찍은 예술인들의 진솔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자리다. 고은 시인을 비롯, 박목월·서정주·신경

림·천상병·김남조씨를 비롯, 박경리·박완서·송기숙·오지호 등 지난 40여년 간 그와 사진으로 친분을 맺은 시인, 화가, 영화인, 소설가 등 50명을 흑백 사진으로 만날 수 있다. "상대방과의 소통을 통해 나오는 사진"을 추구한 작가의 작품 하나하나에는 자연스럽게 풍기는 예술가들의 독특함이 고스란히 배어 나온다. 풍조 수북한 재떨이를 앞에 두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소설가 이외수씨와 박경리씨의 모습도 카메라에 담겼다. 문의 062-221-1808.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시인 서정주.



소설가 박경리.

감성 울리는 피아니스트 정승훈

오늘 오후 7시30분 금호아트홀서 독주회

피아니스트 정승훈 독주회가 21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금호아트홀이 오디션을 거쳐 진행하고 있는 2012 금호주니어 콘서트 시리즈 일환으로 열리는 음악회다. 호남예술제 출신으로 현재 건국대학교 음악교육과에 재학중인 정씨는 올해 열린 아시아음악콩쿠르에서 전체 대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에는 서울시 음악영재 콘서트에도 참여했다. 또 국제 비엔나음악제 마스터 클래스를 수료했으며 건국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도 앞두고 있다. 연주 레퍼토리는 베토벤의 '32개의 변주곡 C단조', 피아졸라의 '파라 피아노 조곡 작품 2', 볼컴의 '에텐의 가든'.



카푸스틴의 '8개의 콘서트 연습곡 작품 40' 등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백남준의 삶과 예술'

오늘 박만우관장 초청

시립미술관 문화강좌

광주시립미술관은 21일 오후 3시 상록전시관 세미나실에서 박만우(사진) 백남준 아트센터 관장을 초청, 상록 문화강좌를 연다. 박 관장은 이날 "백남준의 삶과 예술"이라는 주제로 비디오 아트 선구자 백남준을 재조명할 예정이다. 시대를 뛰어 넘어 포스트 비디오아트를 실천한 백남준의 창의 정신을 설명하는 한편, 문화와 예술간 소통을 중요하게 여긴 그의 예술 세계를 조망하게 된다. 박 관장은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한 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과 부산비엔날레 현대미술전 전시 감독 등을 거쳤다. 문의 062-613-7132.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장흥점 080) 222-9975
 서울점 02) 765-9940 순천점 061) 752-9940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